

# 아시아 가치론의 재해석 가능성 일고

장 원 석\*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동아시아 담론의 역사적 고찰
- III.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쟁점
- IV. 아시아적 가치의 재해석
- V. 맺는 말

## I. 문제의 제기

근래에 들어 동아시아의 범위를 ASEAN+3로 새롭게 설정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SEAN+3체제'를 '동아시아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다. 2004년 11월에 서명된 비엔티안 액션 프로그램(VAP)은 2020년까지 아세안 시장을 유럽연합 방식의 단일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하였다. 동아시아체제가 지향하는 지역협력의 방식은 APEC이나 ASEM과 달리 배타적 지역주의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물론 그 핵심은 경제협력 및 군사·안보 공동체의 건설에 있는데 만일 문화적 정체성이 뒷받침 된다면 그것의 성공가능성은 배가 된다할 것이다. 이 경우 아시아적 가치론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 정하는 유력한 가설이 된다.

그동안 이 가설에 대해서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고 1997-98의 IMF 경제 위기는 치명적인 일격이 되었다. 심지어 아시아적 가치의 전도사인 이광요까지도 점차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시아는 가상의 공동체에 불과한가? 아시아적 가치론은 권위주의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가?

이 글은 아시아적 가치론의 쟁점을 분명히 한 후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행함으로써 첫째, 이 가설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고, 둘째, 그것이 일 정수준에서 적용가능함을 보이려한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정치(cultural politics)가 성립가능함을 주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 II. 동아시아 담론의 역사적 고찰

본래 아시아의 개념은 서구적 사고의 산물로서 발전해왔다. 유럽의 타자라는 의미에서 아시아의 존재는 호머(Homer)의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몽테스키외나 마르크스, 베버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과장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사이드(E.W.Said)에 의하면 서구열강에 의해 식민지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의 이미지는 더욱 왜곡되었고 그것은 후진성, 정체성, 관능성, 비문명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고착되었다. 서구사회의 아시아 연구(Asian Studies)는 이러한 식민지적 사고의 전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구시대의 잔재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Milner and Johnson, 1997).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아시아 지역의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서 아시아의 개념은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는다. 근대화의 열풍 속에서 오카쿠라 텐신(Okakura Tenshin), 타고르(Tagore), 손문(Sun Yat-Sen) 등 일본, 인도, 중국의 지식인들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문명의 우위를 주장하며 아시아의 대동단결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시아 문명론은 서구의 식민주의와 맞서기 위한 저항적 의미가 강했으며 내용적으로 볼 때 추상적인 논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며 자신의 대륙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를 주장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러한 전통은 비동맹-제3세계의 연대라는 맥락 하에서 부활되었다. 인도의 네루(Nehru)와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Sukarno)가 이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특히 1955년의 반동회의에서는 경제력을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에 맞서 아시아의 도덕적, 정신적 저력을 보여주자는 결의가 표명되었다.

아시아의 공동체의식이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광요(Lee Kuan Yew)와 마하티르(Mahathir) 양자에 의해서 주장된 아시아적 가치론은 정치권력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과 서구사회의 도덕적 황폐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결합되어 아시아의 부활을 위한 대담한 가설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동아시아 국가의 유교적 전통에 주목하여 일련의 덕목을 아시아적 가치의 내용물로 지적하였는데 그것들은 권위·질서·합의를 존중하는 공동체주의적 전통, 가족의 가치, 강도 높은 노동윤리와 근검절약의 정신, 교육열 등이다.<sup>1)</sup> 이광요의 경우 싱가포르의 국가발전 그 자체를 모델로 삼는데 반해 마하티르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을 주목하였다. 이광요가 부드러운 권위주의를 지향했다면 마하티르는 보다 노골적으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특히 마하티르는 신식민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고 음모설을 제기하는 등 보다 전투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저항적 아시아 담론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Barr, 2002: 44). 일부 서구학자들 역시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신유교윤리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Kahn, 1979; Vogel, 1991), 아시아적 가치론은 냉전의 종식과 문명의 충돌이라는 시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부 논자들에 의해서 한 때 서구식 자유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Hall, 1999). 이에 따르면 문명사적으로 볼 때 역사의 주도권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동양의 가치가 서구의 그것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동등하게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서구의 척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의 논리가 아니라 역사의 물결이다. 이러한 견해는 아시아적 민주주의가 탈냉전의 시대에 적합한 제 3의 정치이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 뒤늦게 논쟁에 합류함으로써 이른바 '차이나 스

1) 1977년 싱가포르의 수상이었던 이광요는 아시아적 가치와 근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가장 직설적인 아시아적 가치론의 전도사가 되었다. Michael D. Barr, *Cultural Politics and Asian Values: The tepid wa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p. 3. 싱가포르 정부는 1989년 국민이념으로서 4개의 핵심가치를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사회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며, 가정을 사회의 초석으로 간주하고, 경쟁 대신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인종적, 종교적 관용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1991년 의회의 백서는 핵심가치대신 공유가치의 표현을 채택하였으며 개인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 지지를 다섯 번째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쿨'(China School)을 선보였다. 중국은 천안문 사건과 티베트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의 압력을 받게 되자 1993년 방콕회의와 비엔나 회의에서 인권의 문제는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서구적 기준을 일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내정간섭이나 주권침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주장은 ASEAN 국가 대부분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중국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중국이 주장하는 '발전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개발독재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데 이 경우 아시아적 가치론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게 된다.<sup>2)</sup>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이광요-마하티르적 명제를 대자적 시각에서 수용하였다. 그는 동아시아인들은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긍지를 갖기 시작하였고 문화적 이질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동질성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이제 도덕적 우위를 앞세워 서구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헌팅턴, 1998: 142). 헌팅턴에 의하면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교적 가치체계를 공유하거나 존중해왔다. 동북아 3국이 문화적 동심원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세안으로 상징되는 여타의 국가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제2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천년 동안 이들 지역을 지배하거나 일정 수준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화교집단은 중국본토와 대만, 홍콩,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헌팅턴은 중국이 머지않아 동아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헤게모니를 회복할 것이며,

2) 중국정부의 태도를 염두에 두며 아시아적 가치론을 인권과 주권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있다. 즉 아시아적 가치론은 인권에 대한 주권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첫째, 인권의 침해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문화적 상대주의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주권의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아시아적 가치론은 후술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마저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론을 인권과 주권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식은 단순화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문화적 속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을 '온건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정영선, 2000: 6). 필자는 아시아적 가치론을 온건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일본은 처음에 미국의 존재를 의식하여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겠지만 결국 중국의 패권을 현실로 인정하고 여기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헌팅턴, 1998:319). 헌팅턴은 동아시아의 국가발전이 이슬람의 인구증가와 마찬가지로 서구가 주도해온 국제질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일본의 경제성장은 아시아적 가치론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배경변수이다. 마하티르의 'Look East!' 정책은 일본모델을 직접적으로 예찬하였으며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의 제안 역시 일본을 동아시아 공동체의 동력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론이나 동아시아의 담론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적극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저명한 언론인인 후나바시 요이치(Funabashi Yoichi)의 '아시아의 아시아화'(Asianization of Asia)라는 표현만이 외국의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는 정도이다(Funabashi, 1993).<sup>3)</sup> 그는 서구사회가 그리스-로마 문화와 기독교를 전통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젓가락 문화 역시 동아시아 공동의 유산이라고 말하며 문화적 정체성은 태평양이 아닌 아시아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적 가치와 동아시아의 담론은 근래에 들어 가장 인기있는 연구주제중 하나이다. 1999년에 출간된 한 저서는 부록으로 아시아적 가치와 관련된 국내논문 70여 편을 소개하고 있으며, 2004년에 나온 또 다른 저서에서는 동 주제를 다루는 사회학자들의 논문 170여 편을 부록으로 소개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한국에서의 대체적인 반응은 아시아적 가치의 논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서구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한국 학계의 일반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할 것이다.<sup>5)</sup>

3) 근래에 들어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의 이상이 제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강상중·이경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목표로』(뿌리와이파리, 2002); 와다 하루키·이원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평범사, 2004). 와다 하루키의 경우 동북아의 개념은 미국을 포함한다.

4) 이승환외, 『아시아적 가치』(전통과 현대, 1999); 한국동북아시아학인연대,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동아일보사, 2004).

5) 논쟁의 몇 사례를 살펴보면, 임현진은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이 과장된 역사적식의 발로이며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손호철은 서구의 유교찬양론을 추종하는 지적 식민성의 발로라고 말한다. 이승환은 아시아적 가치론이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이거나 개발독재의 이데올로기라고 단정한다. 한편 함계봉은 아시아적 가치론에 대한 거부감을 진보적 역사철학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지식인의 불편한 자아의식을 반영한다고 본다. 서구이론에 함몰된 주변부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비판했던 김석근은 아시아적 가치를 시대착오적이라 매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임현진.

### Ⅲ.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쟁점

아시아적 가치는 분석의 차원과 평가의 차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독특한 정치문화를 지칭하는 동시에 그것의 성과를 정당화한다. 각각의 영역에서 쟁점을 검토해보자.

아시아적 가치론은 분석의 차원에서 적어도 네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서구의 가치와 구별되는 아시아적 가치란 존재하는가의 근본적 물음이다. 가령 근면, 검약, 교육의 정열은 유교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종교나 윤리 속에서도 동일한 내용물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아시아적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경우 유교 윤리의 일부 구성요소는 베버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등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구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는 아시아적 가치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존재가 확인된다.<sup>6)</sup> 둘째, 아시아적 가치는 동아시아의 일부 유교권 국가에만 적용되는 한계

"근대화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발전: 신화와 현실," 『정신문화연구』 21권 1호(1998), pp. 47-66; 손호철,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 『경제와 사회』 봄(1998), pp.143-159; 이승환, "아시아적 가치의 담론학적 분석," 이승환외, 『아시아적 가치』(전통과 현대, 1999), pp.313-336;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론의 정치학과 인식론," 『아시아적 가치』, pp. 183-242; 김석근, "IMF,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지식인," 『아시아적 가치』, pp.243-312.

6) 가령 동아시아 7개 국가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히치콕의 조사는 양자 사이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확인한다. David I. Hitchcock, *Factors Affecting East Asi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1997). 히치콕은 1996년 국제연구전략센터(CSIS)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중국, 일본 7개국의 지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히치콕은 동아시아의 미국의 가치 사이에 공통적 요소가 다수 존재하며 따라서 차이가 과장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히치콕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미국과의 가치관의 차이를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히치콕은 서구의 정책결정자들이 양자 사이에 잔존하는 차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하며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이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히치콕은 동아시아의 문화가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개인적 자유보다는 조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p.2) 히치콕은 1994년에도 국제연구전략센터의 지원을 받아 동일한 7개국에 대한 면접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조사는 100명의 사회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아시아와 미국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 속에 진행되었다. 히치콕은 양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확대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동아시아 사회가 자신의 전통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정신적 상실감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서구적 가치를 잘 수용하고 있다고 보

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시아적 가치의 종교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지만 종교의 분과가 아닌 삶의 철학으로서 아시아적 가치는 헌팅턴이 주장하듯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가령 공동체주의, 위계질서, 가족의 가치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Barr, 2002: 9). 셋째, 아시아적 가치는 충분히 근대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서구적 가치로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구적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간주하는 근대화론자 혹은 발전론자의 시각이다.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넷째, 아시아적 가치는 일부 정치지도자나 특정 지배집단의 문화이며 중산층 혹은 기층민중의 의식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적 가치론을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만 파악하고 역사적 실재를 외면하는 문제가 있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평가의 차원에서 아시아의 정치와 경제, 즉 아시아적 민주주의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을 정당화한다. 이에 따르면 첫째, 아시아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약하지만 공동체의 번영을 담보하는 좋은 정부를 지향한다.<sup>7)</sup> 둘째,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정치적 안정,

---

았다. David I. Hitchcock, *Asian Values and the United States: How Much Conflicts?*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1994).

- 7)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은 이른바 싱가포르 스쿨의 몇몇 정치인과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원론적 수준에서 개진되었고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따라서 개념은 논리적인 엄격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서술과 분석, 평가의 차원이 혼재하고 있어서 일관된 논의가 매우 어렵다. Eric Jones, "Asia's Fate: A Response to the Singapore School,"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4), pp. 18-22. 그것은 싱가포르식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서술적 개념인 동시에 유교문화의 전통과 관련하여 성공의 원인을 진단하며, 싱가포르 정치체제의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우위를 함축한다. 싱가포르 정치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인 찬헝치(Chang Heng Chee)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좋은 사회의 실현에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된다면 민주주의의 이념은 좋은 정부의 존재를 통해서 실현가능하다. 그녀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강조, 권위의 존중, 융합적인 지배정당의 존재, 경제발전을 담당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에 네 가치를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열거하였다. Chan Heng Chee, "Democracy, Evolution and Implementaion: An Asian Perspective," in Robert Bartley, ed. al. *Democracy and Capitalism: Asian and American Perspective* (Singapore :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3), pp. 21-24.

효과적인 정부의 역할, 특유의 노동윤리 등 유교적 자본주의에 힘입은 바 크다.<sup>8)</sup> 평가적 차원에서의 반론은 아시아적 민주주의가 사실상 권위주의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며<sup>9)</sup>, 유교적 자본주의론은 IMF 사태가 보여주듯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정실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고 주장한다.<sup>10)</sup> 혹자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이 우연적 요소에 힘입은 바 크며 아시아적 가치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루시안 파이(Lucian Pye)는 아시아

- 
- 8) 유석춘은 유교자본주의의 특징이 국가주도의 산업화, 국가관료의 정책적 판단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압도하는 메커니즘에 있다고 보았다. 유석춘,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 현대』 창간호 (1997 여름), pp. 81-99. 한편 피터 버거는 일반인의 생활속에 용해된 세속적인 유교의 노동윤리를, 투 웨이밍은 교육열과 근면·검약의 정신 등 마음의 습성(habits of mind)을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요인으로 보았다. Peter L. Berger,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Peter L. Berger, and H. Hsiao, eds.,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ress, 1993), pp. 3-12; Tu Wei-ming, *Confucian Tradition in East Asia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타이(Tai)는 개인주의의 병리를 억제하는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간주하는 정서적 모델(The Affective Model)을 주장하였다. Tai Hung-chao, ed., 구범모 감역, 『공자의 경제학: 유교와 경제성장』 (서울: 한세, 1996).
- 9) 아시아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은 다시 두 가지 논리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근대화이론의 논리를 이곳에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체제 역시 자유주의 정치학의 보편적 모델에 따라 조만간 민주화의 궤도를 밟게 될 것이다. 물질적 번영의 가속화는 자유와 자율의 욕구를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 필연적 단계를 맞게 될 것이다. 중산층의 내부로부터 의식의 각성이 진행될 것이며 참여의 욕구가 증대 될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성공의 실패'에 의하여 역사속에서 퇴장할 것이다. 둘째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론의 논리로서 이들은 아시아적 정치문화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한다. 아시아적 가치가 지속되는 한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론을 개진하고 있는 학자들은 동아시아 사회가 본질적으로 서구와 상이한 정치문화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동아시아는 반다원주의의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국가는 자체의 목적을 추구한다. 중산층은 서구의 부르주아 계급과 달리 국가의존적이며 체제의 공모자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부활과 거리가 먼 국가의 선제공격에 불과하다. Daniel Bell et al.,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 10.
- 10) 유교자본주의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유교가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경제학과 친화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있다. 유교는 자본주의의 추동요인이 아닌 제약요인이 된다. 이상익, "유가의 경제사상과 유교자본주의론의 타당성문제," 『철학』 제 66권 (한국철학회, 2001); 최연식, "중국에서 본 유교자본주의론 비판," 『동서연구』 제 11권 제 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 1999).



가 근대화를 이루더라도 민주화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헌팅턴도 유교적 민주주의는 용어상의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sup>11)</sup> 한편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아시아적 예외주의를 파괴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세바스찬 맬러비(Sabastian Mallaby)는 IMF로 인하여 미국의 세계관이 별 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세계로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IV. 아시아적 가치의 재해석

### 1. 분석을 위한 이론 자원

아시아적 가치론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자원은 근대화 이론과 헌팅턴식의 문화적 자율성이론이다. 전자는 비서구적 의식세계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결국 서구적 가치에 수렴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후자는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하며 상이한 문명 사이에서 단층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로렌스 해리슨, 새뮤얼 헌팅턴, 로버트 푸트남은 베버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문화적 전통이 매우 지속적이며 현대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하여 칼 마르크스로부터 다니엘 벨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론자들은 산업사회의 등장이 전통적인 가치체계로부터의 이탈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Harrison and Huntington, 2000: 80)

그러나 필자는 아시아를 포함한 비서구사회가 근대화과정에서 서구의 문화

11) 헌팅턴은 유교적 민주주의가 조어상의 모순일 수 있지만 유교사회에 있어 민주주의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유교문화 속에도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 규범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310. 김대중 역시 유교적 전통 속에 서구적 민주주의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Klaus-Georg Riegel, *Inventing Asian Tradition: The Controversy between LeeKuan Yew and Kim Dae Jung*, *Development and Society*, Vol.29, No.1 (June 2000), pp 75-96.

에 접근하다가 그것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다시 이탈 내지 평행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제3의 가설을 지지한다.<sup>12)</sup> 여기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후기근대사회가 보여주는 문화적 욕구와 자존심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화가 초래하는 신식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대체적으로 후기산업사회의 시대정신은 문화적 공존과 차이의 철학에 입각해 있으며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매스로우(Maslow)의 가설이 보여주듯이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아시아적 가치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이치와 무관치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서구의 경제적, 문화적 공세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비서구사회로 하여금 전통문화의 파괴를 우려하게 만들고 이에 저항하도록 자극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Birch, 2001: 23).

## 2. 재해석의 방향

아시아적 가치론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이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아시아적 가치론은 실재하는 현실에 근거하여 창조된 논리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론은 이 지역에서 대다수의 국가가 민주화를 완료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담론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에서 그 존재가 확인될 것이다. 즉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신장되는

12) 잉글하트는 지구인구의 75%를 차지하는 65개 사회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경제발전은 대규모의 문화변동을 초래하지만 고유한 문화적 전통의 지속현상 역시 발견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절대적인 규범과 가치 대신 합리적이며 관용적인 가치를 지향하게 만들고 제도화된 종교의 역할을 축소시키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통적 가치의 영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사회는 문화적으로 수렴하는 대신 자신의 고유한 궤적을 따라 평행선을 그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5 (Februaru 2000), p. 49.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후기근대사회의 도래와 세계화의 물결은 자유주의를 강화시킴으로써 아시아적 가치를 중화시키는 효과 역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명사적으로 볼 때 국제화, 세계화의 의미는 차이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단위 상호간의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서구적 이념의 체계모니가 약화되고 동양적 가치가 존중됨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개인 혹은 국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성의 의미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식의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시아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조될 것이지만 보편적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내용까지 존중 될 수는 없다. 오늘의 세계는 사회구조의 다원화, 이질화 현상과 관련하여 권력의 해체, 조직원리의 이완, 자치욕구의 증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등장 역시 역기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정보화의 과정은 국가의 시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의 국가권력 통제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후꾸야마에 의하면 9·11이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단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 사태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되고 역사의 종언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근대화가 강력한 화물열차와 같아서 9·11 같은 사태로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추세라고 본다(Stanly Kurz, 2002: 57).

정치와 경제 및 문화는 현실을 구성하는 3개의 주요 동인으로서 각각은 서로에 대해 동시적인 인과관계를 구축해나간다. 서구의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와 어느 정도 차이를 유지하는 아시아적 문화의 존재는 아시아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도 일정수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경우 아시아적 가치의 정치적 효과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마하티르식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나 싱가포르식의 부드러운 권위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서 공동체적 민주주의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sup>13)</sup> 유교적 규범과 민주주의의 양립가능성을 인정하는 후꾸야마에 의하면 아시아의 유교적 민주주의는 개인

13) 필자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김영명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장차 덜 비자유주의적이고 덜 동양적이 되겠지만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꼭 같은 모습을 띠지는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적 민주주의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영명, "동아시아의 문화와 정치,"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pp. 178-179.

의 자유와 공동체의 필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sup>14)</sup> 마찬가지로 아시아적 가치의 경제적 효과는 WTO나 IMF의 압력에 불구하고 사회적 형평과 발전주의라는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발전국가적 경향의 지속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발전주의적 경제전략(developmental strategies)은 국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고용상의 신분보장, 연구와 투자에 대한 국가적인 개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Barr, 2001: 82). 그리고 그것의 성과 역시 실패로서 속단될 수 없을 것이다.<sup>15)</sup> 헌팅턴의 경우 아시아적 가치의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바 있다. 즉 헌팅턴에 의하면 아시아적 가치는 그 동안 동아시아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그 후 경제 위기의 주범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자 다시 경제 회복에 일조하고 있다. 루시안 파이 역시 헌팅턴과 비슷하게 동아시아 체제의 경제적 성과를 인정한다. 그는 매개변수와 상황적 맥락을 무시한 채 문화적 특징과 경제적 성과를 결합시키는 것은 오류를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동아시아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동일한 문화적 요인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Harrison and Huntington, 2000: 255).

- 
- 14) 싱가포르 정치체제를 연성권위주의 개념화하고 있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것의 두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는 시장지향적 경제체제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결합시키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권위주의체제이다. 둘째로 유교적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고 도덕적 국가의 존재를 통해서 사회적 욕구 충족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Francis Fukuyama, "Asia's Soft-Authoritarian Alternative," *New Perspectives Quarterly* (1992), pp. 60-61. 아시아의 정치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독특한 정치적 에토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후쿠야마는 연성권위주의체제를 서구민주주의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싱가포르체제가 유교문화의 전통을 명분으로 필요 이상의 강권을 발동 중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싱가포르의 연성권위주의가 보다 민주화된 유교적 민주주의로 진화 할 것을 기대한다. Francis Fukuyama, "Confucianism an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6 (1995), pp. 30-33.
- 15) 필자는 유교자본주의론을 유교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추동요인이라는 의미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 유교의 전통도 경제발전과정에서 나름대로 순기능을 하였으며 그것은 국가주도형의 발전전략과 특유의 노동윤리 등의 성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논지를 주장하고 있는 논문으로서 국민호, "종교 및 역사학: 유교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발전," 한국사회학회, 『95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1995) 참조.

그렇다면 공동체적 민주주의와 발전주의적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동아시아 전지역에서 동일한 크기의 힘을 발휘할 것인가? 아시아적 가치론의 적용 범위와 수준은?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팅턴의 패러다임을 원용하고 싶다. 즉 아시아적 가치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의 주변국가로 제2, 제3의 물결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본다.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몇몇 유교국가의 가치규범을 일반화하여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거론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교적 가치의 내용물은 이미 종교로서 의미를 상실한 삶의 에토스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개인주의를 배격하는 생활방식은 유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나 불교문화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시아 공동의 정신적 유산이다.<sup>16)</sup>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는 베버

16) 가령 말레이시아의 썅크탱크 책임자인 누딘 소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사회를 운영하며 근면절약의 정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적대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Noordin Sopiee, “The Development of an East Asian Consciousness,” in G. Sheridan (ed.), *Living with Dragon: Australia Confronts Its Asian Destiny* (sidney: Allen and Unwin, 1995), pp. 180-193. 근래에 들어 한류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이것을 새로운 정체성의 창출과정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문화적 동질성의 확인과정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논리에 따르면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속에서 잊혀져 가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경로효친, 권선징악 등 동남아의 전통적 미풍양속의 정서가 한류의 인기 비결이다. 유럽연합의 비전을 맨 처음 창도한 장 모네(Jean Monnet)는 유럽은 존재한 적이 없으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체성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관점에서 파악할 때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은 하나의 기획의 문제로서 고찰될 수 있다. 김석근은 동아시아의 대중문화가 서구문화를 주체적 수용하고 이를 변용시키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한류현상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김석근, 2004: 29). 그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은 동화와 배제를 넘어서는 다문화적 사회의 지향,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열린 지역주의의 추구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영서 역시 동아시아에 보급되고 있는 소비문화의 확산을 새로운 정체성의 창조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미국식 대중문화에 접근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을 2등급 상업문화의 수용 혹은 문화제국주의라고 배격하지 말고 새로운 아시아의 탄생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가?(백영서, 2004: 128). 그는 전지구화현상 속에서 나타난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전통과 연결된 민간사회와 대중문화에 기초한 소비사회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면서 이 양자의 결합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케 할 문화적 자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시각을 주목한다. 베트남의 『영화세계』 당티우웅 언기자는 한류열풍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화적 동질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베트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기본적인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기

가 말했던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분석적 의의를 충분히 갖는다 하겠다. 종교적 다양성을 이유로 문화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논리는 다소 성급한 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아시아적 가치는 하나의 역할 모델로서 훌륭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모색함에 있어서 역내 선진국가의 의식세계가 규범적 측면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의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시아적 가치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건설하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한다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민노동자의 디아스포라(diaspora) 현상은 아시아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sup>17)</sup> 탈영토화를 지향하는 세계화 현상의 일부분으로서 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사태는 이 지역의 문화적 융합과 변용을 초래하며 국경없는 아시아의 건설에 일조할 것이다.

## V. 맺는 말

혹자는 정체성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정체성의 개념 자체가 허구이며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뿐이다. 또

---

때문에 한류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말한다. 또 현대화, 산업화, 도시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잊혀져가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한국드라마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한겨레신문, “베트남은 한류와 열애중.” 2004년 8월30일). 『미안마 알린』의 예민트 페 편집장은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드라마 내용에 경로효친, 권선징악 등 동남아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담겨 있는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말한다(한겨레신문, “동남아 최빈국 미안마에도 한류 열풍 솔솔.” 2004년 9월27일). 한류현상은 동아시아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으며 그것은 한국 문화상품의 동아시아 시장개척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동아시아인의 감성과 현대적 삶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한겨레신문 “한류는 21세기의 아방가르드.” 2004년 12월13일). 홍콩의 주간지 『아주주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화문화권에서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정서적 공감대가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이지형,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한류: 문화를 타고 수출이 간다.” 『월간조선』 2001년 11월호).

- 17) 와다 하루키는 동북아시아의 경우 가교의 중심은 한반도이며 이 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결과 한민족이 동북아시아의 인간적, 평화적 협력을 위해 활동할 가장 적합한 주체라고 말하고 있다(와다 하루끼,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pp. 33-34).

한 모든 수준에서의 정체성은 상위 공동체 혹은 하위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안은 주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협력을 위주로의 접근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실리주의적 발상의 연대는 생명력이 짧을 수 있고 그 관계 역시 견고하지 못하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그것을 창조하는 과정은 지역협력의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정체성 논의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는 종교와 인종의 다양성만을 염두에 두는 성급한 결론이나 암암리에 서구의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편향된 의식세계에서 비롯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미국사회만 하더라도, 지나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직면해 있으며 보다 공동체적인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여러 갈래의 시도가 있다. 아시아적 가치론이 강조하는 가족의 가치는 사실상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구호이기도 하다.<sup>18)</sup> 만일 아시아적 가치론이 서구적 가치의 한계를 보완하며 그것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대안적 이념으로 성립가능하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필자는 투웨이밍(Tu Weiming)의 주장처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유교와 삶의 철학으로서 유교는 구별되어야 하며 후자는 민주주의와 결합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물론 이 경우에 유교적 민주주의는 싱가포르식의 부드러운 권위주의가 아닌 서구적 의미의 공동체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관계를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양립가능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 즉 아시아적 가치가 강조하는 국민에 대한 위정자의 책임의식과 국민들이 보여주는

18) 그러나 아직 아시아적 가치론과 서구자유주의에 대한 내부적 비판 사이에는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Michael D. Barr, *Cultural Politics and Asian Values: The tepid wa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p. 11. 더구나 미국의 가치(American values)를 미국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로 해석하는 통설적 분위기를 전제한다면 아시아적 가치를 보편성으로부터의 이탈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자기모순적이라 말할 수 있다. 미국의 가치와 미국이 예외주의에 대해서는 Seymour Martin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Norton, 1996) 참조. 그러나 이른바 합의설(consensus theory)을 가정하는 미국의 예외주의 가설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반론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Robert Booth Fowler, *Enduring Liberalism: American Political Thought Since the 1960*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9) 제2장 참조할 것.

권위에 대한 존중은 자유주의 이념의 결합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보편적 윤리로서 수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문명의 충돌을 거부하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의 창조를 원한다면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용기와 의지가 요구된다. 동양과 서양의 진정한 교류를 향한 첫걸음은 정신적인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문명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Harrison and Huntington 2000: 266). '두 개의 문화를 존중하고 양자의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철학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 참 고 문 헌

- 국민호, “종교 및 역사학: 유교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발전,” 한국사회학회, 『95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1995).
- 김석근,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 그리고 아이덴티티: 지역공동체 구상과 관련하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년 춘계세미나 자료집』 (2004년 5월 28일)
- 김영명편,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98).
- 배금찬, “ASEAN+3협력과 동아시아 정체성,” 『동남아시아연구』 제13권 1호 (2003).
- 박제훈,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시아지식인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일보사, 2004).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근대화과 사회문화 변동: 전통사회의 해체와 시민사회의 성장,” 『동아연구』 제46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2004년 2월).
-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8).
- 손호철,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 『경제와 사회』 봄 (1998)
-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1).
- 와다 하루끼, 이원덕 역,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4).
- 임현진, “근대화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발전: 신화와 현실,” 『정신문화연구』 21권 1호(1998)
-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1999).



- 정영선,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흥정 논리,” 『호남정치학회보』 제11집 (호남정치학회, 1999).
- \_\_\_\_\_, “인권사상의 재인식과 인권의 보편성,” 『한국동북아논총』 제16집 (2000)
- 최영진 · 지준호, 『동아시아 유교윤리의 새로운 지향』 (청어람미디어, 2004).
- 최연식, “중국에서 본 유교자본주의론 비판,” 『동서연구』 제1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 1999).
-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일보사, 2004).
- Barr, Michael D., *Cultural Politics and Asian Values: The tepid wa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 Bell, Daniel A., David Brown, Kanishka Jayasuriya, and David Martin Jones,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 Birch, David, Tony Schirato, and Sanjay Srivastava, *Asia: Cultural Politics in the Global Age* (New York: Palgrave, 2001).
- Cha, Beng Huat, *Communitarianism and Democracy in Singapo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 Chan Heng Chee, “Democracy, Evolution and Implementaion: An Asian Perspective,” in Robert Bartley, ed al. *Democracy and Capitalism: Asian and American Perspective* (Singapore :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3).
- Daniel Bell et al.,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 Emmerson, Donald K. “Singapore and Asian Value Debates,” *Journal of Democracy*, Vol. 6 (1995).
- Evangelista, Oscar L., *Building the National Community* (Quezon: New Day Publisher, 2002).
- Fukuyama, Francis, “Asia's Soft-Authoritarian Alternative,” *New Perspectives Quarterly* (1992).
- \_\_\_\_\_, “Confucianism an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6 (1995).

- \_\_\_\_\_. "Asian Values and the Asian Crisis." *Commentary* (February 1998).
- Funabashi, Yoichi. "The Asianis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72, 5 (1993).
- Jones Eric. "Asia's Fate: A Response to the Singapore School."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4).
- Hall, David L. and Roger T. Ames. *The Democracy of the Dead: Dewey, Confucius, and the Hope for Democracy in China*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1999).
- Harrison, Lawrence E. and Samuel P. Huntington.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2000).
- Hitchcock, David I., *Asian Values and the United States: How Much Conflict?* (Washington: Centre to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4).
- \_\_\_\_\_. *Factors Affecting East Asi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1997).
-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7)
- Fowler, Robert Booth. *Enduring Liberalism: American Political Thought Since the 1960*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9).
- Kahn, H. and T. Pepper.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9).
- Klaus-Georg Riegel. Inventing Asian Tradition: The Controversy between LeeKuan Yew and Kim Dae Jung. *Development and Society*, Vol. 29, No.1 (June 2000).
- Kurtz, Stanley. "The Future of History: Francis Fukuyama vs. Samuel P. Huntington." *Policy Review* (June/July, 2002).
- Lipset, Seymour Martin. *American Exceptionalism -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Norton, 1996).
- Milner, Anthony. "Asia Consciousness and Asian Value." Faculty of Asian Studies,

2002. <http://www.anu.edu.au/asianstudies> (검색일 2004년 1월 15일)
- \_\_\_\_\_. "What Happened to Asian Values?" Faculty of Asian Studies.  
2002. <http://www.anu.edu.au/asianstudies> (검색일 2004년 1월 15일)
- Milner, Anthony and Deborah Johnson. "The Idea of Asia," in John Ingelson (ed.), *Regionalism, Subregionalism and APEC* (Clayton: Monash Asia Institute, 1997).
- Milner, Anthony and Mary Quilty (eds.), *Australia in Asia : Comparing Cultures*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Noordin Sopiee. "The Development of an East Asian Consciousness," in G. Sheridan (ed.), *Living with Dragon.: Austrlia Confronts Its Asian Destiny* (sidney: Allen and Unwin, 1995).
- Peter L. Berger.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Peter L. Berger, and H. Hsiao, eds.,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ress, 1993).
-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5 (Februaru 2000).
- Pye, Lucian W., *Asian Power and Authority: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Belknap Press of Havard University Press, 1985).
-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 Sopiee, Noordin. "The Development of an East Asian Consiousness," in G. Sheridan (ed.), *Living with Dragon: Australia Confronts Its Asian Destiny* (Sidney: Allen and Unwin, 1995).
- Tai Hung-chao, ed., 구범모 감역. 『공자의 경제학: 유교와 경제성장』 (서울: 한세, 1996).
- Tu, Wei-ming, *Confucian Ethics Today: The Singapore Challenge* (Singapore Curriculum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1984).
- \_\_\_\_\_. *Confucian Tradition in East Asia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Vogel, Ezra.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